

북한의 상황

The Situation in the North

김정은과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까지 과정이 험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양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이 일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무역제재를 통해 미국이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불만을 표하고 비핵화 과정의 세부사항을 미루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 사람들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재를 어긴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으며 트럼프대통령은 무역제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동안, 북한과 남한은 서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나, 비무장지대의 병력과 전초기지를 감소시키고, 남북단일팀 축구 토너먼트를 계획하며, 백두산 화산활동을 모니터하는 기지에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서로 친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뒷전에 나앉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북한의 보안(안전)을 보장하는 국가로서의 입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We remember the rocky road leading up to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Kim Jong Un and Donald Trump. While both sides have agreed, in principle, to a follow up summit in the near future, it's not clear when that might happen. Meanwhile tensions are on the rise again as North Korea pushes back on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while complaining that the U.S. is undermining confidence through continued enforcement of trade sanctions. At the same time, the U.S. complain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flouting sanctions every chance they get as Trump states that he is not about to lift them. As this is going on, North and South Korea are getting cozier with each other pushing forward a project to link railroads (despite sanctions), decreasing troops and outposts in the DMZ, planning joint soccer tournaments and seeking to cooperate on an outpost to monitor volcanic activity on Paektu San. In all of this, China is not taking a back seat as they seek to continue to serve as North Korea's security guarantor.

이 상황에서, 기복이 심한 국제적 협상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여행 규제입니다. 이 여행규제가 두 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도주의 기관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이런 규제가 곧 풀릴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풀리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를 북한으로 보내는 일이 큰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행규제가 풀리기 보다 더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One aspect of this situation that continues to bother many people, people who are more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North Korea's people than they are with the up and dow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s the ongoing travel ban that Donald Trump instituted against North Korea. This ban is now in its second year. Many humanitarian groups had hoped that, given the recent political atmosphere, it would be allowed to end. However, that is not the case and many organizations are facing

great difficulty in getting needed aid into the country to those truly in need of it. In fact, it has even been tightened up.

그리고 가을 추수시기는 왔는데 농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새로 수확한 곡물을 훔쳐가는 절도행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에 들어갔지만 연료가 부족함에도불구하고, 김정은은 그의 가족의 성역인 금수산 태양궁전을 보강하기 위해 인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매스게임들이 참가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공연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지침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더욱 엄중 단속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기가도를 달리는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 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승산없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And, fall is here with its harvest season--but where are the farmers? Stealing newly harvested grain is a potential problem. Winter preps are underway but people are low on fuel while Kim Jong Un calls for the renovation of the main sanctuary of the family cult, the Kumsusan Palace of the Sun, with the people footing the bill. Also, the latest rendition of the mass games that put so much pressure on the participants is extending its run. In the meantime, the authorities seek to clamp down even more on dissent as well as wage a losing battle against South Korean media--ever popular with the populous--from entering the country.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앤드류 브런슨 선교사가 미국에 돌아와 산으로 둘러싸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브런슨 선교사 내외가 미국에 돌아 온 지 얼마 안되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트럼프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 힘을 준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구절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Wonderful news! Andrew Brunson is back home in the United States enjoying the North Carolina mountains and his family. A big "Thank you!" to all who have been praying for them. Just after returning they got an invitation to the White House and visit with President Trump. Paul's admonition to Timothy to "finish the race well" was the word that gave Pastor Andrew the strength to keep on throughout his long ordeal.

북한에 억류된 여섯 명의 남한사람들과 데일리NK기자인 최송민(가명)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이들에 대해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류됐거나 풀려난 목회자들과 다른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And, we continue to pray for six South Koreans held in the North as well as Daily NK journalist, Choi SongMin (alias). North Korea has not been responsive. Here's

information on the pastors and others who have been detained and released.

생명의강 학교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생들은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다” 를 창작뮤지컬로 선보이게 됩니다. 11월 1, 3, 5일 이 지역의 몇몇 장소에서 영어로 공연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직접 음악을 제작하고 작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창작을 통해 이웃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준비과정 속에 있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겨 나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students are presenting their original musical based on Max Lucado's "You Are Special." They are performing, in English, at various local venues on November 1, 3 and 5. Faculty and students together developed the music and the lyrics. Their desire is to bless our neighbors through this production. It's been great seeing it and they all come together despite some big bumps along the way.

고3 학생들은 내년 대학진학을 앞두고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Our seniors are going through the interview process for college entrance next year. Please hold them up in your prayers.

12월 19일 이번 해 교과과정이 끝납니다. 학년말 기간 동안 학교생활에서 좋은 시간이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school year ends on December 19. Pray that the last weeks of school be good and that everyone stay the course even as they see the end coming closer.

네번째 강 프로젝트와 삼수령센터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친구이자 앞으로 동역하게 될 이그니스 공동체의 조이윤 (Joy Yoon) 자매가 Discovering Joy: Ten Years in North Korea (기쁨을 발견하다: 북한에서의 10년)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Joy 자매의 가족이 평양에서 척추연구센터를 건축하는 동안 그곳에 살며 뇌성마비 어린이 환자들에게 사역하며 체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사는 분들은 11월 11일 오후 4시에서 5시 30분까지 Church at the Fields (교회명)에서 특별 책 사인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1401 Carrollton Pkwy, Carrollton, TX 75010) 이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클릭하십시오.

Special Announcement: Our good friend and potential partner, Joy Yoon of Ignis Community, has just released her Discovering Joy: Ten Years in North Korea about her family's experience living inside while building a spine research center in Pyongyang and ministering to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For those of you living in

the Dallas, TX area, there is a special book signing coming up on November 11 at the Church at the Fields, 1401 Carrollton Pkwy, Carrollton, TX 75010 from 4:00 to 5:30 in the afterno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book, [click here](#).

저희 상수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현재로서는 저희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 상수도를 설치하는 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현재의 상수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큰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 동안 문제가 없고 저희 센터 위쪽에 있는 우사에도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오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부분도 잘 고칠 수 있었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동안 내년도 건축계획을 잘 마무리 짓고 건축을 추진할 재정을 모금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for our water system. As it turned out, as we applied to the Forestry Department to go forward with the project, they asked us to meet conditions that we are not yet able to. So, the new system will have to wait until next year. In the meantime, we have spent quite a bit of money on upgrading our existing system so that we are confident it will make it through the winter and not cause problems with water to the cattle barns above us. We were also able to take care of a lot of heavy damage from recent rains and protect against future problems. Do keep praying as we spend the winter finalizing construction plans for next year and raising the funds needed to proceed.

최근 기쁜 일은, 이그니스공동체와 다른 단체가 몽골,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북한에 들어가 일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일이 진척되어 앞으로 파트너로 함께 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북한에 대해 배우며 신앙공동체로 부터 힘과 지원을 얻을 준비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장소가 되어 주길 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지혜와 이해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We are excited at some recent developments that could well lead us into important partnerships with Ignis Community and other groups that are recruiting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such as Mongolia, Brazil, the Philippines and Mexico, to go into North Korea as workers and sharers of Jesus' love. They need a place to prepare, to learn Korean and about North Korea, to be strengthened and supported by community. We believe that God may want us to be that place. Pray for wisdom and understanding for us as we seek God's will in relation to this.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삼수령이야기라는 간략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십년간의 재정보고서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We have prepared a brief report, The Three Seas Story, for anyone interested in what God has done. It also includes a financial report covering the past ten years. You

may read it here in English or Korean.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토리
네번째강 프로젝트 대표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